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68호 현대불교  
2010년 1월 27일(음 12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한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돕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고등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치고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찰나에 백지를 뛰어 넘지 못해서 항상 너그럽지 못하고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자의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들고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이 아니 된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 고 치셨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고 치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주장자보다 치는 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죠.

그 세 가지를 따져 본다면,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것도 그놈, 작다고 하는 것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그놈, 바로 '나' 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현재로 따져서,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 본다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나조차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찰나찰나에 그냥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일거수일투족 그냥 행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고 듣는 거와 가고 오는 거와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찰나찰나에 화(化)해서 돌아가느니만큼 바로 시공이 초월했다는 말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려서, 그거를 변연히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를 알면서도 몽땅 그 자리에다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무효인 것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못살든 잘살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있는 것이 바로 확증이 되어 내가 스스로 부치고, 내가 스스로 부치니까 내가 스스로 법을 행하고, 내가 법신(法身)이나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서 항상 깃달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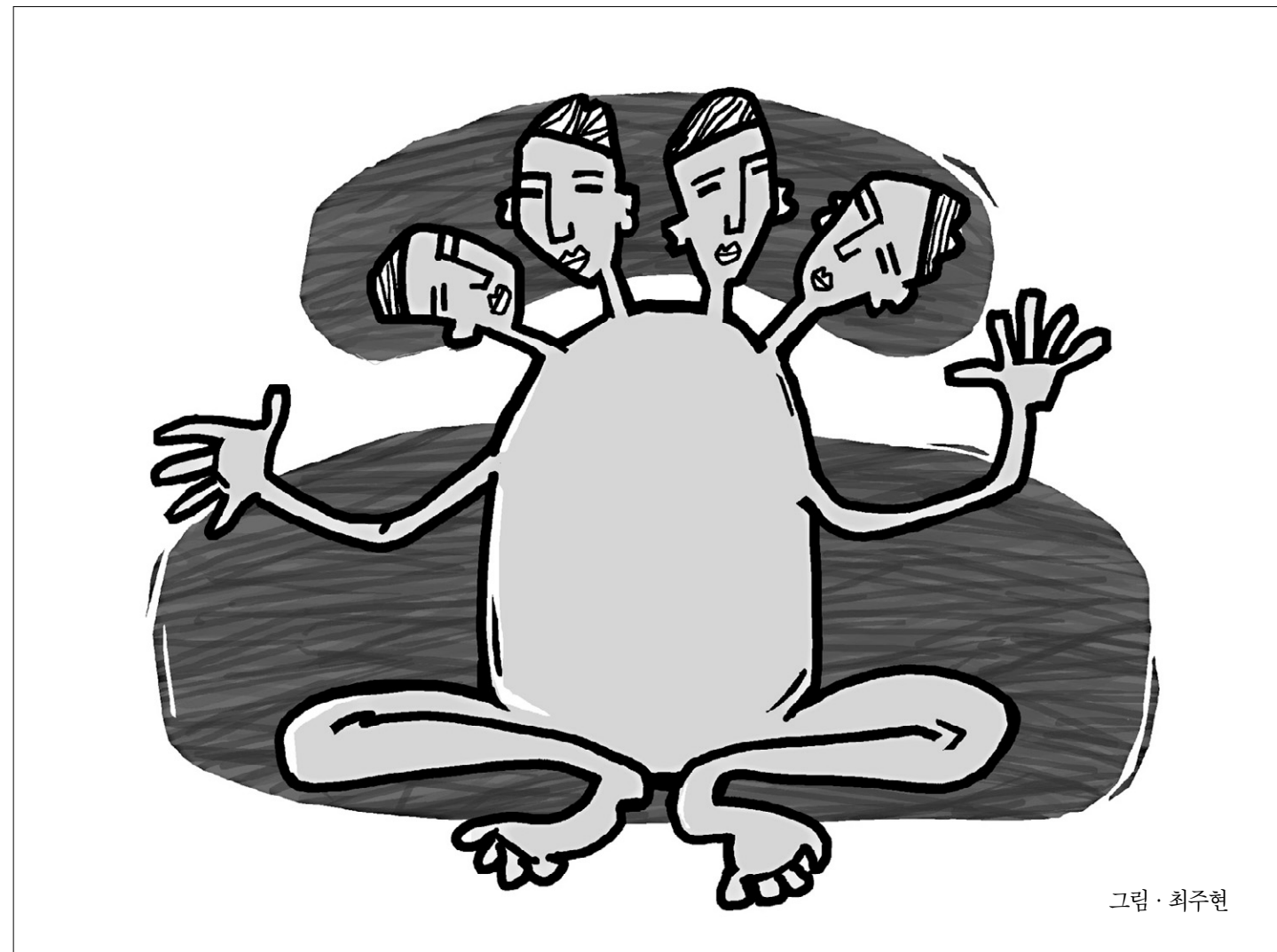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야 합니다.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안고 삼보에 귀의한다.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한다.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전체,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體)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그 성종은 바로 내 성종이요, 그러나... 성종이라고 한 게 거꾸로 됐어요? 중성(中性)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 거꾸로 됐으나 바로 됐으나 똑같은 말 아니까요.

그런데 그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법도, 행하는 것도 모두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일체가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믿는 것도 법이다. 둘이 아니라고 믿

는다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배우는 것도 우리요, 번뇌를 끊는 것도 우리요, 이루는 것도 우리요,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추어진 청각 시각 미각 촉각 시각 후각, 이러한 여섯 가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육근이 그냥 행한다 말입니다. 보시나 지계다, 인욕이 다 정진이다, 선정이다 반야다 하는 것도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딴 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벌려 놓고 가닥을 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도리구(道理句)를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려 놓은 거를 자기가 가닥을 치지 못하면 어수선 산란 하기 때문에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하고 몰아

부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시작도 끝도 간단하죠. 모두가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하는 것이고, 그놈이 하는 것이니까 바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쪽 벌려 놓고 아리송하게 이 건가 저건가 애쓰지 마시고, 몰랐든 알았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걸 막론하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막론하고 근본 자체는 각자 바로 여기 (가슴을 짚어 보시며)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 놓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이 고깃덩어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가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딴 짐승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견지려면 하나에

서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견지기 때문에 '나 아니 되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아픈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또 더불어 같이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같이 있죠,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죠. 그러나 하나도 나 아님이 없이 그냥 초월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 옆방에 붙을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차원에 따라서, 붙고 안 붙는다 하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항상 '그 간단한 거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고 생각합니다. '반야심경'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내가 거기에서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 이렇듯 그 얘기를 가끔 하죠. 그것이 뭐냐?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뉘는 겁니다. 변해서 금방 나뉘어서 그냥 딴 걸로 바뀐단 얘깁니다. 우리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화하는데 내가 인간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성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성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뭐가 되든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내 몸통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공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직장이 내 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최수가 내 최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통틀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한 몸통이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나, 내가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다. 이것을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뭐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세울 게 없고, 내가 다 하고 세울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 세울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묵살해 버리고 '모든 것은 당신 자체

26면으로 계속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3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성,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권,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출강 및 통신

###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등복지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팩스·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